국회도서관도 생각하고 판단한다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을 잘 모르는 지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꼭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국회도서관 직원 수에 대해서다. 현재 약 400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고 답하면, 대부분 놀란다. 그 많은 직원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과 함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지인도 있다. 맞다. 국회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물리적인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 없다. 그러나 국회도서관은 책 보관뿐 아니라 외국 정책·법률, 자료, 번역, 서비스 등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을 포함해 일반 열람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도서관에 직접 찾아와 책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 도서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도서관을 통해 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업무도 간단하다. 과거에는 책 제목과 저자, 핵심어 정도가 중요한 정보 DB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 권의 책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또 그에 따른 수많은 문자가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문자들의 조합 정보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정보일 수 있고, 그 이상의 지식과 지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자 조합을 DB화해 객관적인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지식과 지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은 어떤 책을 소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회도서관이 소장하는 수많은 책의 정보를 투입 요소로 삼아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책에 있는 정보를 관련 영역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과 판단이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AI)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지금의 시대 흐름에 맞춰 국회도서관에 필요한 AI를 개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AI를 통해 발전해 가는 국회도서관의 자료 제공은 단순한 정보에서 한 차원 높은 경지로 나갈 수 있다. 모든 책에는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있다. 특정 정책을 입안하려면 방대한 내용의 책들을 찾고, 해당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책에서 소장한 문자로 표현된 내용을 조각조각 세분화해 그 의미를 인식하고 DB화해 소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까지 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됐다고 가정해 보자. 예를 들어

한 국회의원이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관련 핵심어인 '소득세율 인상'을 입력하면 소득세율에 따른 경제적 효과, 관련 외국의 입법사례와 성공 혹은 실패 효과를 모두 집대성한 자료가 생성될 수 있다. 이는 특정 입법을 위한 해당 핵심어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그 책을 통해 해당 법안이 국가 전체에 주는 구체적인 효과와 효율성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통해 그의 존재가 국민에게 알려진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은 수많은 입법안을 구상하고 제안한다. 개별 입법안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직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존재한다. 의원 입법안은 아무리 신중하게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특정 입법안을 제안하는 초기에 해당 정책을 평가한 책을 단 몇 분 만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략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할 때 국회의 연구기관을 활용하면, 좀 더 치밀한 분석이 가능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됐다. 그러나 이제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많은 장서의 내용을 모두 분해해 의미를 파악하여 DB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정책을 지원하는 인프라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것이다. 특정 입법안,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 핵심어만 입력하면 몇 분 안에 관련 서적이 발간되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미 민간경제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모든 선진국은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국회도서관도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 관점에서 국회도서관이 갖는 최고의 장점은 수많은 책이다. 이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회도서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제 국회도서관이 책을 소장하는 기능은 너무도 미미해졌다. 정보를 보관하는 기능이 아닌, 정보를 활용하고 판단하는 기능에 국회도서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를 실현한다면 국회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따라가는 기관이 아닌, 선도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